호주면

대표적인 면양 국으로만 알고 있던 호주가 근래 중요한 면화 재배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호주의 2011/12년도 면화 수확량은 98만 톤으로 중국, 인도, 미국, 파키스탄, 브라질,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세계 7번째 면화 생산국이며, 수출에서는 미국과 인도에 이어 3대 면화 수출국이다.

원래 호주에서의 면화 재배 역사도 근 100년 전부터 퀸즈랜드 주에서 재배하였던 기록이 있으나 상징적인 것이었고, 면화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던 것이었는데, 196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에서 온 농업 이민에 의하여 면화 생산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 뉴사우스웨일tm(NSW)주에 정착한 이들은 북동부지역인 나모이(Namoi) 강 유역에 안착하게 되었는데, 이 고장의 기후 풍토가 캘리포니아 샌 호아킨 벨리와 비슷한 점에 착안하여 면화 경작을 시작하였고 결국 성공하였던 것이다.

특히, 나모이 강 상류에 댐이 완공되면서 이 고장에서의 면화생산은 급진적으로 늘어났다. 이들 이민 농민의 노력은 면화 경작만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공동구입과 판매 체제를 조직화 하였고, 은행을 설득하여 저리의 융자를 이끌어내 비즈니스를 확대하여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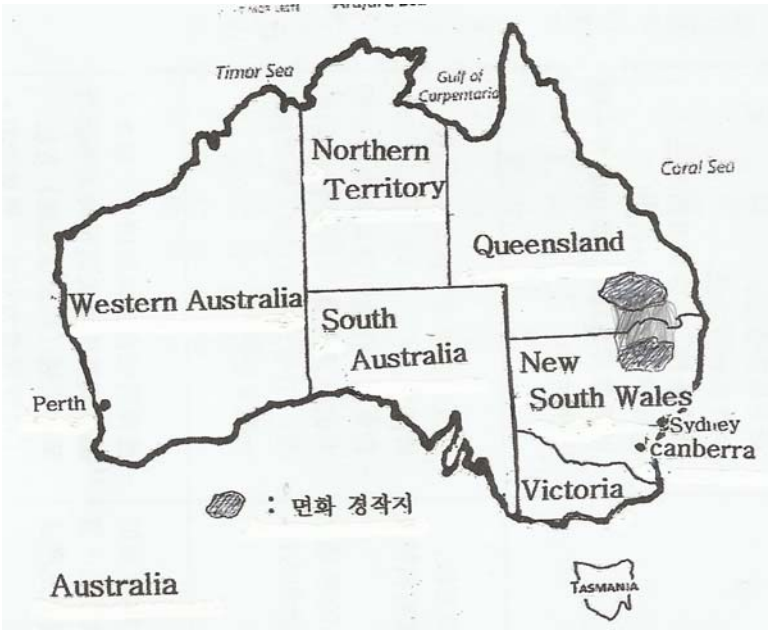
이러한 초기 활동은 기존의 퀸즈랜드 농민에게도 전파되어 현재는 퀸즈랜드 남동지방에 코튼 인더스트리 카운실(Cotton Ind. Council)이란 이름으로 생산, 판매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호주 면화의 품질은 중번수 용이 주축을 이루며 아리조나 면이나 샌 호아킨 면과 같이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면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섬유 강력의 증진, 꾸준한 품질 개량, 신품종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새로운 소비자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호주 과학 연구진과 몬산토 생명과학 연구진에 따르면 일반 면화 밭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량의 극히 소량만으로도 재배 가능한 혁신적인 면화가 개발 되었다고 한

다. 이것은 시간과 돈의 절약만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인 의미가 크다고 혁신부 장관은 말하고 있다. 또한 그는 호주야말로 유전공학을 이용한 효율적인 면화재배 부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또한, 1996년 퀸즈랜드에서 유전자 변형(GM) 면화가 소개된 이후 지금까지 이 주 전체에서 생산된 면화의 1/3 이 유전자 변형 면화였다고 한다. 동시에 퀸즈랜드가 차지하는 면화 생산량은 호주 전 생산량의 31%가 된다고 한다.

대개의 면화 수출국이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반구에 위치하는 호주는 브라질과 함께 북반구의 농사를 시작할 철인 봄에 새 면화를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어 더욱 귀중한 존재가 되고 있다.

면화의 수확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기계화되어 있고 생산측면, 관리측면, 품질측면, 물류측면에서도 안정되어 있으며 생산량의 거의 전부를 수출하고 있다. ♣(공석붕)